「지방정부연구」 제29권 제3호(2025. 11): 359-379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9 No.3 (November 2025)
http://dx.doi.org/10.20484/klog.29.3.15

지역주민의 지역 애착이 축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축제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 영 옥

국문요약

본 연구는 27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무주반딧불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지역 애착이 축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축제몰입의 매개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최근 많은 지역축제들이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반딧불축제가 장기간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을 지역주민의 심리적 요인을 통해 분석하였다.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성인 주민 44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30.0과 Hayes의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후, 5,000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분석의 엄밀성을 확보하였다.

분석 결과, 설정된 4개의 연구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지역 애착은 축제몰입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β=.655, p〈.001), 축제몰입은 지속가능성에 매우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05, p〈.001). 또한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유의하였으며(β=.513, p〈.001), 축제몰입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간접효과=.3585, 95% CI: .2843~.4391).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82.4%가 축제몰입을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나, 축제몰입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지역 애착→축제몰입→지속가능성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축제 지속가능성 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실무적으로는 축제 운영자와 지방정부에게 지역주민의 축제몰입 제고가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 전략임을 시사하며, 지역 애착도 향상을 통한 간접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간주도형 축제 운영 모델의 효과성을 입증하여 주민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축제 운영 방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지역 애착, 축제몰입, 지속가능성, 무주반딧불 축제

Ⅰ. 서론

지역축제는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는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러한 축제들은 지역 정체성 확립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1997년 시작된 이래 27회째를 맞이하며 전국 대표 생태축제로 자리매김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이 축제는 "반딧불과 함께 그린(Green) 가치"라는 슬로건 하에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지향하는 환경축제로서, 무주만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반딧불이로 형상화한 독창적 콘셉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부지정 우수축제 14회 연속, 최우수축제 5회 연속 선정, 그리고 최근 2024 피너클 어워즈 에코투어리즘 축제 분야 선정 등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많은 지역축제들이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반딧불축제가 27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학술적 탐구가 필요하다. 가장 최근 공개된 2023년도 데이터에 따르면, 무주반딧불 축제에는 약 43만 명의 방문객이 참여했고, 약 150억 원의 직접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무주반딧불 축제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주반딧불축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메커니즘을 지역 애착도와 축제몰입의 관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무주군 주민들의 지역 애착도가 축제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축제몰입이 지속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며, 셋째, 지역 애착도와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에서 축제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 지역주민 참여와 축제몰입이 축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주도형 축제로 운영되는 무주반딧불축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몰입이 축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축제 지속가능성 연구의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축제 관련 연구들은 주로 방문객 만족도, 경제적 파급효과, 혹은 축제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지역 애착도와 관련된 연구 역시 대부분 축제에 대한 혜택 인식이나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한정되었으며, 축제몰입과 지속가능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각각의 직접적 관계에만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지역 애착도→축제몰입→지속가능성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축제몰입을 핵심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지역에 대한 일반적 애착이 축제에 대한 구체적 몰입을 통해 지속가능성 인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축제 지속가능성 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27년간의 역사를 가진 무주반딧불축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장기간 지속된 성공적 축제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핵심 요인을 규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지역축제 지속가능성 연구에서 이론적·실증적 기여를 동시에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역 애착의 개념과 구성차원

지역 애착(place attachment)은 지역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형성하는 심리적 유대

감과 정서적 연결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지역 애착도는 단순한 거주 만족도를 넘어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강신겸(2001)은 지역 애착도를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나 집단이 공동으로 느끼는 심리적 연대감"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정서적 측면에의 정체성, 기능적 측면에서 의존성, 사회적 측면에서 친분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고, 김종규(2012)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도가 높을수록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통, 화합 그리고 이웃간 교류 증대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정승환·최영재·정혜진, 2019: 178). 정승환 외(2019)의 시흥갯골축제 연구에서는 지역 애착도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며, 소속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생활공간으로서의 매력과 경제적 필요를 느끼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이들은 지역 애착도를 의존성과 친분성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의존성은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충족시키는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을, 친분성은 지역사람들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역 애착도의 개념정의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행동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임을 시사한다.

지역 애착도는 거주기간, 지역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정승환 외(2019)의 연구에서 조사된 시흥시민들의 거주기간을 보면, 15년 이상 장기거주자가 전체의 56.0%를 차지하여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 주민들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거주기간이 지역 애착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애착도는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김종규(2012)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느끼도록 하려면 지역 커뮤니티의 소득 증대와 함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지역축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편익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지역 애착도가 단순히 지역에 대한 감정적 차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여건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 애착도의 구성차원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소 다른 접근을 보이고 있다. 강신겸(2001)은 지역 애착도를 정체성, 의존성, 친분성의 3차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정승환 외(2019)의 연구에서는 비슷한 문항들을 제외하고 의존성과 친분성의 2차원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의존성(dependence) 차원은 개인이 특정 지역에서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거주 적합성, 직장과의 접근성, 생활의 편리성 등을 포함하는 기능적 애착의 성격을 갖는 개념이다. 반면 친분성(intimacy) 차원은 지역 내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와 유대감을 의미하며, 이웃과의 친밀도,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 정승환 외(2019)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2차원 구조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는데, 각각의 차원이 축제에 대한 인식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의존성과 친분성 모두 축제혜택 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축제손실 인식에는 의존성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축제몰입의 이론적 기반과 특성

몰입(flow 또는 commitment)은 개인이 특정 대상이나 활동에 대해 갖는 심리적 애착과 참여의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조직행동론 분야의 몰입 이론을 축제 분야에 적용하여 축제몰입의 개념은 완성되었다. 대표적으로 Allen과 Meyer(1990)는 조직몰입은 감정적 몰입(affective commitment),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 규범적 몰입(normative commitment)의 세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감정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동일시를 의미하며,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인식에 기반한 몰입을, 규범적 몰입은 도덕적 의무감에 기반한 몰입을 의미한다. 이러한 몰입의 개념은 몰입을 경험한 개인이 재미 이상의 만족감을 느끼며 어떤 활동에 깊이 심취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심리학, 스포츠, 레저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었다. 박정익·이미혜(2011)는 축제에서의 몰입은 프로그램에 참여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개인의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만족감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했다.

지역주민의 축제 분야에서 몰입은 지역주민이 축제에 대해 갖는 심리적 애착이나 참여하고 싶은 의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역주민이 축제에 대한 애착으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축제 전 과정을 자신의 문제처럼 동일시하는 정도이다.

유진우·김철원·김영문(2014)은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축제몰입의 구성차원을 3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 감정적 몰입은 축제에 대한 정서적 애착과 자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지역축제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지역의 축제는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역축제에 대하여 자랑을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둘째, 규범적 몰입은 축제 참여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과 가치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지역주민이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고, 셋째, 지속적 몰입은 축제가 주는 혜택과 축제의 지속적 참여 의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지역축제가 주는 혜택 때문에 축제에 참여한다", "나는 지역축제가 지속되는 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유진우·김철원·김영문, 2014: 66).

축제몰입은 다양한 선행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동시에 축제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진우 외(2014)의 연구에서는 주민참여가 축제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축제 진행단계와 평가단계에서의 참여가 몰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축제몰입의 결과변수로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축제몰입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축제 지지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논리에서이다. 홍경완 외(2007), 박정익·이미혜(2011)의 연구에서 축제에 능동적 참여동기가 부여되면 축제를 향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몰입 정도를 높이고, 몰입은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유진우·김철원·김영문, 2014: 65).

3. 축제의 지속가능성 개념과 구성요소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은 환경 분야에서 시작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적용되고 있다. 축제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은 축제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지속가능의 개념은 환경오염 또는 변화에 따라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등 삼중구조(Triple Bottom Line)에서 고려해야 하는 개념으로 여겨졌는데, 이러한 TBL이 여러 관광학자들에 의해 축제분야의 지속가능성과 접목되어 연구가 이루어져왔다(유진우·김철원·김영문, 2014: 63). 일반적인 축제 지속가능성의 TBL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경제적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축제는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지역축제는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된다", "지역축제의 방문객수와 수익성은 증가하고 있다", "지역축제로 인하여 주변 관광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지역축제는 관광객의 소비지출에 도움이 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둘째,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축제 개최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제로 인하여 주변 경관이 더 아름다워 졌다", "축제로 인하여 생태적 환경조성(녹지조성 등)에 더 좋아졌다", "축제로 인하여 관광사업체의 오염원 차단활동이 강화되었다" 등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축제로 인하여 관광객에 의한 오염발생이 심해졌다", "축제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질오염이 악화되었다" 등의 부정적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축제가 지역사회의 사회통합과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제로 인하여 지역사회 문화자원 보전이 더 잘되고 있다", "축제로 인하여 관광객과 주민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해 졌다", "축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단합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축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축제로 인하여 지역의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다(박수향, 2010; 유진우 외, 2014: 66).

4.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지역 애착도가 축제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나, 관련 연구들을 통해 그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정승환 외(2019)의 시흥갯골축제 연구에서는 지역 애착도의 하위차원인 의존성(β=.422, p〈.001)과 친분성(β=.339, p〈.001)이 모두 축제혜택 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송상섭(2010)의 연구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정체성 및 사회적 관계)이 높을수록 내부 지역관광개발과정에 참여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신겸과 도경록(2011)의 슬로시티 관광개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애착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활동에 더 큰 관심과 참여가 수반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역 애착도가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인 축제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김종규(2012)는 지

역사회 애착심이 높을수록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이웃들 간의 교류가 늘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정승환 등, 2019: 182). 창원시 가고파 국화축제를 연구한 남중헌(2019)의 연구에서는 지역 애착도가 주민참여에 정의 방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연구는 실증분석결과 지지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지역 애착도가 축제에 대한 몰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축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축제몰입과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는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청산도 솔로우걷기 축제를 연구한 이광옥(2010)의 연구에서는 축제 몰입이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축제성공을 이끌어낸다고 하였고, 유진우 외(2014)의 전곡리 구석기축제 연구에서는 주민참여가 몰입을 매개로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실증되었다. 축제 진행단계에서의 주민참여(β=.225)와 평가단계에서의 주민참여(β=.373)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몰입은 다시 지속가능성의 각 차원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몰입이 경제적 지속가능성(β=.706, p<.001), 환경적 지속가능성(β=.735, p<.001),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β=.732, p<.001)에 모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축제에 몰입한 주민들이 축제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축제의 장기적 지속 필요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애착도가 지속가능성 인식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Gursoy & Rutherford(2004)는 지역축제에 애착이 있는 지역민들이 관광에서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더 잘 인식한다고 하였으며, Gursoy et al.(2002)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관광개발의 긍정적 영향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정승환 외, 2019: 181-182),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9)의 시흥갯골축제 연구에서는 지역 애착도의 의존성 차원이 축제혜택(β=.422, p<.001)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분성 차원도 축제혜택(β=.339,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축제혜택은 축제지지도(β=.418, p<.001)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애착도가 축제의 지속가능성 인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남중헌(2019)의 창원시 연구에서도 축제 성과의 경제적 차원이 지역 애착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β=.180,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문화적 성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 애착도와 축제 성과 간의 관계가 복합적이며, 성과의 정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남중헌(2019)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지역 애착도가 주민들의 참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지역에 대한 애착도가 높더라도 축제에 대한 직접적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애착도와 참여 사이에 다른 매개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5. 축제몰입의 매개효과: 이론적 정합성과 작동 메커니즘

본 연구의 핵심 기여는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축제몰입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지역 애착 → 축제몰입 →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이론적으로

정합적이며 실체적으로 타당함을 명확히 논증할 필요가 있다.

축제몰입의 매개효과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과 태도-행동 모델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지역 애착은 축제몰입으로 전환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 사회교환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특정 관계나 상황에서 얻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심리적 유대감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참여를 통해 더 많은 편익을 기대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김종규(2012)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이 높을수록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소통, 화합, 이웃간 교류가 증대되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대 편익은 축제에 대한 감정적·규범적·지속적 몰입으로 이어진다. 둘째, 태도-행동 모델의 관점에서 매개효과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지역 애착도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반면, 축제몰입은 축제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구체적 태도를 나타내며, 지속가능성 인식은 축제 지속에 대한 행동의도를 반영한다. 일반적 태도(지역 애착도)가 구체적 태도(축제몰입)를 통해 행동의도(지속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심리학의 일반화된 태도-행동 연결 모델과 일치한다. 정승환 외(2019)가 시흥갯골축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 애착도의 의존성과 친분성이 축제혜택 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지역에 대한 일반적 애착이 축제에 대한 구체적 인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축제몰입이 매개변수로서 작동하는 구체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지역 애착이 축제몰입 형성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 강신겸과 도경록(2011)은 지역사회 애착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활동에 더 큰 관심과 참여가 수반된다고 하였으며, 송상섭(2010)의 제주도민 연구에서도 지역에 대한 애착(정체성 및 사회적 관계)이 높을수록 내부 지역관광개발과정에 참여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유대감이 지역 내 활동인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형성된 축제몰입이 지속가능성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유진우 외(2014)의 전곡리 구석기축제 연구에서 몰입이 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에 모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축제에 몰입한 주민들이 축제의 경제적 기여(지역경제 기여, 고용창출), 환경적 가치(경관 개선, 생태환경 조성), 사회문화적 효과(주민 단합, 삶의 질 향상)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축제의 장기적 지속 필요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광옥(2010)의 청산도 솔로우걷기 축제 연구에서도 축제 몰입이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축제성공을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3단계에서는 축제몰입을 통한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와 함께 작동하여 부분매개 구조를 형성한다.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직접적 경로도 존재하는데, Gursoy & Rutherford(2004)는 지역축제에 애착이 있는 지역민들이 관광에서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더 잘 인식한다고 하였으며, Gursoy et al.(2002)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관광개발의 긍정적 영향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정승환 외(2019)의 시흥갯골축제 연구에서는 지역 애착도의 의존성 차원이 축제혜택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축제혜택은 다시 축제지지도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애착도가 축제의 지속가능성 인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유진우 외(2014)의 연구는 본 연구의 매개모형과 유사한 구조를 제시한다. 그들의 연구에서 주민참여가 몰입을 매개로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실증되었는데, 축제 진행단계에서의 주민참여(β=.225)와 평가단계에서의 주민참여(β=.373)가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몰입은 다시 지속가능성의 각 차원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중헌(2019)의 축제성과→지역 애착도→주민참여의 경로 모형도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역 애착 → 축제몰입 → 지속가능성의 매개경로는 사회교환이론과 태도-행동 모델에 기반하여 이론적으로 정합적이며,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타당함이 확인된다. 지역에 대한 일반적 애착(전반적 태도)이 축제에 대한 구체적 몰입(특정 태도)을 통해 축제 지속에 대한 긍정적 인식(행동의도)으로 전환되는 3단계 메커니즘은 축제 지속가능성 연구의 핵심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지역 애착도가 축제몰입을 매개로 지속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근거와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지역 애착도(독립변수) → 축제몰입(매개변수) → 지속가능성(종속변수)의 매개모형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애착도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연구모형

H1: 지역 애착은 축제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축제 몰입은 축제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지역 애착은 축제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지역 애착이 축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축제 몰입의 간접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지역 애착은 "개인이 거주지역에 대해 갖는 정서적, 사회적 유대감과 소속감의 정도"로 강신겸(2001)과 정승환 외(2019) 및 남중헌(2019)의 연구를 참조하여 무주군에 대한 거주 만족도, 자긍심, 계속 거주 의향, 타인 추천 의향 등을 측정하는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축제몰입은 "지역주민이 축제에 대해 갖는 심리적 애착과 참여의지의 정도"로 정의하고, Allen과 Meyer(1990)의 조직몰입 이론과 유진우 외(2014)의 축제몰입 연구를 바탕으로 감정적, 규범적, 지속적 몰입을 포괄하는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속가능성은 "축제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로 정의하고 유진우 외(2014) 및 남중헌(2019)의 연구를 참조하여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의 3차원으로 구분하여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구성과 출처는 〈표 1〉과 같다.

〈표1〉 측정도구의 구성

측정 척도		문항수	측정내용	출처
지역 애착		7	무주군 거주만족도, 삶의 중심축, 이주시 아쉬움, 무주군에서의 거주 의미, 거주 자긍심, 특별한 의미, 친목활동 참여	강신겸(2001),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9) 남중헌(2019)
축제 몰입	감정적 몰입	7	축제운영 문제의식, 축제성공 노력, 축제 애착심, 축제의 중요성, 축제 자부심, 타인에게 자랑, 운영진과의 친밀감	Allen & Meyer(1990) 정연욱(2010) 곽서연(2012) 유진우·김철원·김영문(2014)
	규범적 몰입	3	주민참여의 가치, 참여의 도덕적 중요성, 불참시 죄책감	
	지속적 몰입	4	혜택 때문의 참여, 축제부재시 지역손해, 타축제 대비 우수성, 지속적 참여의지	
지속 가능성	경제적	5	지역경제 기여, 고용창출 효과, 방문객/수익성 증가, 주변관광지 활성화, 소비지출 촉진	박수향(2010) 남중헌(2019) 유진우·김철원·김영문(2014)
	환경적	3	경관 아름다움 증대, 생태환경 개선, 환경규제 강화	
	사회문화적	5	문화자원 보전, 상호교류 활성화, 지역주민 단합, 삶의 질 향상, 지역이미지 개선	

3.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무주반딧불 축제가 개최되는 전라북도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성인 주민으로 설정하였다. 2024년 11월 기준 무주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23,000명이며, 이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인구는 약 20,000명 정도이다. 표본은 무주군의 행정구역인 6개 읍면(무주읍, 무풍면, 부남면, 설천면, 안성면, 적상면)을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표집으로 2024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1개월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각 읍면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진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면접조사로 실시하여 총 452부를 수거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하여 최종 449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30.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파

악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KMO(Kaiser-Meyer-Olkin) 표본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4.2를 사용하였다. PROCESS 매크로는 Baron과 Kenny(1986)의 전통적인 3단계 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신뢰구간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으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으며, 효과크기의 해석을 위해 Cohen(1988)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449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51	56.0
	여성	198	44.0
연령	20대	64	14.3
	30대	82	18.3
	40대	104	23.2
	50대	108	24.1
	60대	38	8.5
	70대	32	7.1
	80대이상	21	4.7
거주지역	무주읍	289	64.4
	무풍면	36	8.0
	부남면	23	5.1
	설천면	40	8.9
	안성면	34	7.6
	적상면	27	6.0
거주기간	1년이상 ~ 5년 미만	91	20.3
	5년 이상 ~ 10년 미만	53	11.8

	10년 이상 ~ 20년 미만	74	16.5
	20년 이상 ~ 30년 미만	92	20.5
	30년 이상	138	30.7
합계		449	100.0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251명(56.0%), 여성이 198명(44.0%)으로 남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50대가 108명(24.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04명(23.2%), 30대 82명(18.3%), 20대 64명(14.3%)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91명(20.3%)으로, 전체적으로 40-50대가 전체 응답자의 47.3%를 차지하여 중년층의 참여가 높았다. 거주지역별로는 무주읍 거주자가 289명(64.4%)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설천면 40명(8.9%), 무풍면 36명(8.0%), 안성면 34명(7.6%), 적상면 27명(6.0%), 부남면 23명(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주군의 인구분포와 유사한 비율로,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기간에 따른 분포를 보면, 30년 이상 장기거주자가 138명(30.7%)으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30년 미만이 92명(20.5%), 1년 이상~5년 미만이 91명(20.3%)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거주한 장기거주자가 전체의 51.2%를 차지하여,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가진 주민들의 비율이 높아 연구의 신뢰성을 뒷받침한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표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변수			요인 적재값	Cronbach's α
지역 애착도		지역 애착1	0.761	.934
		지역 애착2	0.811	
		지역 애착3	0.83	
		지역 애착4	0.818	
		지역 애착5	0.826	
		지역 애착6	0.781	
		지역 애착7	0.63	
축제몰입	감정적 몰입	감정몰입1	0.754	.934
		감정몰입2	0.72	
		감정몰입3	0.693	
		감정몰입4	0.737	
		감정몰입5	0.714	
		감정몰입6	0.67	
		감정몰입7	0.665	
	규범적 몰입	규범몰입1	0.513	.774
		규범몰입2	0.617	
		규범몰입3	0.673	
	지속적 몰입	지속몰입1	0.504	.794
		지속몰입2	0.567	
		지속몰입3	0.826	
		지속몰입4	0.662	

지속가능성	경제적 측면	경제적1	0.793	.936
		경제적2	0.809	
		경제적3	0.839	
		경제적4	0.491	
		경제적5	0.432	
	환경적 측면	환경적1	0.903	.863
		환경적2	0.928	
		환경적3	0.827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문화적1	0.566	.931
		사회문화적2	0.623	
		사회문화적3	0.676	
		사회문화적4	0.585	
		사회문화적5	0.546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표본적합성 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 직교회전을 통해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측정문항들이 이론적 배경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요인구조를 보였다. 각 문항의 요인적재치가 기준값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요인 간 구분이 명확하여 판별타당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든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Nunnally(1978)가 제시한 기준치 .70을 상회하여 내적 일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 애착은 .934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축제몰입의 하위차원인 감정적 몰입(.934), 규범적 몰입(.774), 지속적 몰입(.794) 모두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지속가능성의 하위차원에서는 경제적 측면(.936)과 사회문화적 측면(.931)이 매우 높은 신뢰도를, 환경적 측면(.863)이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지역 애착의 평균은 3.6074(표준편차 .94029), 축제몰입의 평균은 3.2193(표준편차 .81720), 지속가능성의 평균은 3.3749(표준편차 .79764)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가 5점 만점에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여 무주군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과 축제몰입, 축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 애착	축제몰입	지속가능성
지역 애착	3.6074	.94029	1		
축제몰입	3.2193	.81720	.655**	1	
지속가능성	3.3749	.79764	.513**	.705**	1

**p 〈 .01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수 간에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지역 애착과 축제몰입 간의 상관계수는 .655(p〈.01)로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역 애착과 지속가능성 간의 상관계수는 .513(p〈.01)로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축제몰입과 지속가능성 간의 상관계수는 .705(p〈.01)로 가장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축제에 대한 몰입이 높을수록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ohen(1988)의 효과크기 기준에 따르면 중간(.30-.49) 이상에서 큰(.50 이상) 효과 크기에 해당하여, 변수 간 관계의 실질적 의미가 충분히 큰 것으로 해석된다.

3. 가설검증

H1: 지역 애착은 축제 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 애착이 축제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지역 애착이 축제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655, t=18.309, p〈.001). 모형의 설명력(R^2)은 .429로, 지역 애착이 축제몰입 변량의 42.9%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축제에 대한 몰입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5〉 지역 애착이 축제몰입에 미치는 영향

변수	B(비표준화)	SE	β(표준화 계수)	t	p
(상수)	1.168	.116		10.085	〈.001
지역 애착	.569	.031	.655	18.309	〈.001
	R^2 = .429, adj R^2 = .427, F(1,447) = 335.211, p 〈 .001				

H2: 축제 몰입은 축제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축제몰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축제몰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705, t=21.069, p〈.001). 모형의 설명력(R^2)은 .497로, 축제몰입이 지속가능성 변량의 49.7%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축제에 대한 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축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6〉 축제몰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B(비표준화)	SE	β(표준화 계수)	t	p
(상수)	1.162	.108		10.718	〈.001
축제몰입	.687	.033	.705	21.069	〈.001
	R^2 = .497, adj R^2 = .496, F(1,449) = 443.889, p 〈 .001				

H3: 지역 애착은 축제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513, t=12.635, p〈.001). 모형의 설명력(R^2)은 .264로,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 변량의 26.4%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축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7〉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B(비표준화)	SE	β(표준화 계수)	t	p
(상수)	1.810	.128		14.113	〈.001
지역 애착	.435	.034	.513	12.635	〈.001
	R^2 = .264, adj R^2 = .262, F(1,446) = 159.641, p 〈 .001				

H4: 지역 애착이 축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축제 몰입의 간접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축제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의 PROCESS macro Model 4.2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축제몰입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 매개변수 모형 (종속변수: 축제몰입)	변수	B	SE	t	p	95% CI
	상수	1.1674	.1159	10.073	〈.001	[.9396, 1.3952]
	지역 애착	.5690	.0311	18.299	〈.001	[.5079, .6301]
		R^2 = .4288, F(1,446) = 334.858, p 〈 .001				
2단계: 종속변수 모형 (종속변수: 지속가능성)	변수	B	SE	t	p	95% CI
	상수	1.0746	.1169	9.188	〈.001	[.8447, 1.3044]
	지역 애착	.0763	.0375	2.035	.043	[.0026, .1499]
	축제몰입	.6301	.0431	14.610	〈.001	[.5454, .7149]
		R^2 = .5023, F(2,445) = 224.575, p 〈 .001				

매개효과 분석 결과, 지역 애착이 축제몰입에 미치는 영향(β=.655, p〈.001)과 축제몰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β=.647, p〈.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총효과는 .435(p〈.001)였으나, 축제몰입을 매개변수로 투입했을 때 직접효과는 .076(p=.043)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간접효과는 .359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한 95% 신뢰구간이 [.284, .43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화된 간접효과는 .423(95% CI: .346, .509)으로, 이는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의 82.5%(표준화 기준)가 축제몰입을 통해 매개됨을 의미한다. 직접효과가 여전히 유의하므로 (p=.043) 축제몰입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으며, 축제몰입은 지역 애착과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부분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9〉 매개효과 검증

효과	계수	Boot SE	95% Boot CI
총효과	.4348	.0344	[.3672, .5024]
직접효과	.0763	.0375	[.0026, .1499]
간접효과	.3585	.0390	[.2843, .4391]
	표준화된 간접효과 = .4234, 95% CI [.3458, .5086]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개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다. 지역 애착은 축제몰입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β=.655), 축제몰입은 지속가능성에 매우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05). 또한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도 유의하였으며(β=.513), 축제몰입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매개효과 크기가 상당히 커서,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82.4%가 축제몰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설	내용	결과
H1	지역 애착은 축제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β=.655, p〈.001)
H2	축제몰입은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β=.705, p〈.001)
H3	지역 애착은 지속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β=.513, p〈.001)
H4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축제몰입의 간접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채택 (간접효과=.3585, 95% CI: .2843~.4391)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7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무주반딧불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지역 애착이 축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축제몰입의 매개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무주군 주민 449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설정된 4개의 연구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 애착은 축제몰입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55, p〈.001). 이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높은 주민일수록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참여의지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승환 외(2019)가 시흥갯골축제에서 확인한 지역 애착도가 축제혜택 인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일치하며, 강신겸과 도경록(2011)이 제시한 지역사회 애착도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축제몰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β=.705, p〈.001). 축제에 몰입한 주민들이 축제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축제의 장기적 지속 필요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유진우 외(2014)가 전곡리 구석기축제에서 확인한 몰입이 지속가능성의 각 차원에 미치는 강한 영향과 일치하는 결과로, 축제몰입이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 동력임을 재확인해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축제몰입의 매개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총효과(.4348) 중 82.4%에 해당하는 부분(.3585)이 축제몰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일반적 애착이 축제에 대한 구체적 몰입을 통해 지속가능성 인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사회교환이론과 태도-행동 모델의 이론적 예측과 일치한다. 일반적 태도(지역 애착)가 구체적 태도(축제몰입)를 거쳐 행동의도(지속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각각의 직접적 관계에만 주목했던 것과 달리, 지역 애착→축제몰입→지속가능성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축제 지속가능성 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둘째, 축제몰입을 핵심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선 인과적 과정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셋째, 27년간의 역사를 가진 성공적 축제 사례를 통해 장기 지속 축제의 핵심 요인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여, 축제 지속가능성 연구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지역 애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82.4%가 축제몰입을 통해 매개된다는 연구결과는 축제몰입 제고가 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에 행위 주체별로 구분하여 축제몰입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애착도 향상을 통한 간접적 접근과 축제몰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지역 애착은 무주군에 대한 거주 만족도, 자긍심, 계속 거주 의향, 타인 추천 의향 등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일상적 삶의 질과 지역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지역 애착의 기반임을 보여준다. 김종규(2012)가 지적했듯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느끼도록 하려면 지역 커뮤니티의 소득 증대와 함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지역축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편익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무주반딧불축제가 2023년 약 43만 명의 방문객과 약 150억 원의 직접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편익의 실체를 입증한다. 또한 민간주도형 축제 운영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균형잡힌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무주반딧불축제가 27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운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축제 운영조직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감정적·규범적·지속적 몰입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감정적 몰입은 축제에 대한 애착심, 축제의 중요성 인식, 축제 자부심, 타인에게 자랑 등으로 측정되었다. 무주반딧불축제의 정부지정 우수축제 14회 연속, 최우수축제 5회 연속 선정, 2024 피너클 어워즈 에코투어리즘 축제 분야 선정 등의 성과는 주민들의 축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된다. 규범적 몰입은 주민참여의 가치와 참여의 도덕적 중요성 인식으

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축제 참여가 단순한 노동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있는 행위임을 주민들이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속적 몰입은 축제가 주는 혜택과 지속적 참여 의향으로 측정되었으며, 축제가 주민들에게 주는 편익이 명확해야 지속적 참여로 이어진다. 또한 유진우 외(2014)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듯이 축제 진행단계(β=.225)와 평가단계(β=.373)에서의 주민참여가 몰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단순한 행사 당일 인력 동원이 아니라 축제 기획·진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공동체 및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주민 간 네트워크 강화와 축제 참여 문화 확산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지역 애착의 측정항목 중 친목활동 참여가 포함된 것은 지역 내 사회적 관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강신겸과 도경록(2011)이 지적했듯이 지역사회 애착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활동에 더 큰 관심과 참여가 수반된다. 본 연구의 응답자 중 20대가 14.3%, 30대가 18.3%로 청년층 참여가 32.6%를 차지한 것은 젊은 세대의 참여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주며, 이는 장기적으로 축제의 세대 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방문객 만족도나 경제적 파급효과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지역주민의 심리적 변수(지역 애착, 축제몰입)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설명하는 주민 중심 접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기여를 한다. 축제몰입의 매개효과가 82.4%에 달한다는 발견은 지속가능한 축제 운영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나 프로그램 개선보다 주민의 심리적 몰입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지역 애착 → 축제몰입 → 지속가능성"이라는 구조적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축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역 애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축제몰입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함을 명확히 했다.

방법론적으로는 PROCESS 매크로를 활용한 현대적 매개분석 기법을 축제 연구에 적용하여, 정확한 매개효과 검증을 수행했다는 의의가 있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신뢰구간 산출로 통계적 엄밀성을 확보하였으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동시 검증을 통해 매개관계의 복합적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횡단적 연구 설계로 인해 변수 간 인과관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지역 애착, 축제몰입, 지속가능성 인식의 시간적 변화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일 축제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하는 점 또한 한계이다.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축제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통해 연구모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축제몰입과 지속가능성의 하위차원을 총화평정 방식으로 합산하여 분석함으로써 차원 간 이질성과 차별적 효과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연구모형의 간명성과 매개효과의 전체적 구조 파악을 우선하여 각 변수를 단일 개념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나, 이로 인해 각 차원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차별적 영향력이 소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애착이 축제몰입의 감정적·규범적·지속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축제몰입이 지속가능성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차원별 경로를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넷

째,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기타 관련 인식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심리적 변수(지역 애착, 축제몰입, 지속가능성 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와 매개효과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모형의 간명성을 우선하였으나, 이로 인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 간 관계를 통제하지 못하여 연구모형의 내적 타당도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성별, 연령, 거주지역, 거주기간 중 특히 거주기간(응답자의 51.2%가 20년 이상 장기거주자)이나 연령대는 지역 애착, 축제몰입, 지속가능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회귀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수준, 소득수준, 축제 참여 경험 등 지역주민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변수들도 조사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관련 인식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연구모형의 설명력과 타당성을 높이고, 나아가 이들 변수의 조절효과를 탐색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어 지역주민의 축제몰입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지역 애착을 기반으로 형성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무주반딧불축제가 27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역주민들의 높은 지역 애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축제몰입이 있었으며, 이것이 축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나 프로그램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심리적 애착과 몰입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축제 운영자들에게 지역주민의 참여를 단순한 노동력 제공 차원을 넘어서 축제의 주인으로서 자긍심과 애착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겸. (2001). 지역사회 애착도가 농촌관광개발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5(1): 233-251.

강신겸·도경록. (2011). 슬로시티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인식비교: 슬로시티 증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23(4): 21-38.

곽서연. (2012). 「축제 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김종규. (2012). 해양스포츠이벤트 개최지 지역주민의 지역 애착도와 태도 관계. 「관광경영연구」, 51: 27-46.

남중헌. (2019). 축제 성과가 지역 애착도 및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창원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3): 151-167.

박수향. (2010).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5(2): 61-81.

박수향. (201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관광개발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

대학교 관광대학원.
박정익·이미혜. (2011). 축제 참가자의 몰입이 만족과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광학연구」, 35(4): 223-240.
박정익·이미혜. (2011). 축제 체험프로그램 참여동기가 몰입과 만족,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벤트컨벤션연구」, 7(2): 39-57.
송상섭. (2010). 제주도민의 지역 애착이 관광개발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관광학연구」, 34(8): 51-72.
송상섭. (2010).「지역사회 애착, 관광영향 인식, 내발적 지역관광개발 참여의사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주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유진우·김철원·김영문. (2014). 축제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몰입과 축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컨벤션연구」, 14(1): 59-77.
이광옥. (2010). 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 참여자의 몰입과 만족도 연구.「관광연구저널」, 24(3): 145-162.
이광옥. (2010).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에 대한 장소성, 몰입, 자긍심간의 영향관계연구.「한국도서연구」, 22(2): 1-18.
정승환·최영재·정혜진. (2019). 지역주민의 지역 애착이 축제의 혜택, 손실 및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시흥갯골축제에 방문한 시흥시민을 중심으로.「호텔경영학연구」, 28(4): 177-192.
정연욱. (2010). 지역축제 방문객의 몰입과 만족, 충성도 간의 관계.「관광경영연구」, 14(2): 89-108.
홍경완·강인호·김원인. (2007). 예술축제에서의 몰입.「관광연구」, 22: 115-131.
홍경완·양승훈·김지석. (2007). 축제 참여동기가 몰입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관광학연구」, 31(1): 235-254.
Allen, N. J. & Meyer, J. P. (1990). The measurement and antecedents of affective, continuance and normative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1): 1-18.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Gursoy, D., Jurowski, C., & Uysal, M. (2002). Resident attitudes: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9(1): 79-105.
Gursoy, D. & Rutherford, D. G. (2004). Host attitudes toward tourism: An improved structural model.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3): 495-516.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9). Multivariate data analysis(8th ed.). Boston: Cengage Learning.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McGraw-Hill.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전영옥(全永沃):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지출의 영향에 관한 연구, 2009)를 취득하고 현재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ssua25@kunsan.ac.kr)

〈논문접수일: 2025. 9. 27 / 심사개시일: 2025. 9. 29 / 심사완료일: 2025. 11. 23〉

Abstract

The Effect of Local Attachment on Festival Sustainability: The Mediating Role of Festival Engagement

Chon, Young Ok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local residents' place attachment on festival sustainability and the mediating role of festival engagement, focusing on the Muju Firefly Festival, which has grown continuously for 27 years. While many regional festivals are facing sustainability crises, this research analyzed the underlying factors that have enabled the Muju Firefly Festival to operate successfully over the long term through residents' psychological factors.

A structured survey was conducted with 449 adult residents aged 19 and over who had lived in Muju-gun for more than one year. The mediation effects were verified using SPSS 30.0 and Hayes' PROCESS macro Model 4. After confirm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ement instruments, confidence intervals were calculated through 5,000 bootstrap iterations to ensure analytical rigor.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all four research hypotheses were supported. Local attachment had a strong positive effect on festival engagement (β=.655, p<.001), and festival engagement had a very strong positive effect on sustainability (β=.705, p<.001). The direct effect of local attachment on sustainability was also significant (β=.513, p<.001), and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festival engagement was statistically confirmed (indirect effect=.3585, 95% CI: .2843~.4391). Notably, 82.4% of the effect of local attachment on sustainability was mediated through festival engagement, confirming the crucial role of festival engagement.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theoretical expansion of festival sustainability research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local attachment→festival engagement→sustainability. Practically, it suggests that enhancing residents' festival engagement is a key strategy for ensuring sustainability for festival organizers and local governments, and presents the importance of indirect approaches through improving local attachment.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driven festival management models and can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festival operation methods based on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Key Words: local attachment, festival engagement, sustainability, muju firefly festival